

지역 소식 통

정읍의 기억' 행사, 22일 한 차례 더 앵글 개최

개화기 의상을 입고 극적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 체험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정읍의 역사와 개화기 문화를 주제로 전시, 체험, 놀이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행사 '정읍의 기억'이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수성동 기억저장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시와 정읍정신마음관리사회적협동조합(대표 유옥경)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성공적인 첫 행사가 힘입어 오는 22일 같은 장소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개화기 사진전 '정읍의 기억'이 운영됐다. 정읍과 개화기 시대 사진 20점이 전시됐으며, QR코드를 통한 해설 서비스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전문 해설가의 '역사전시 도슨트'는 하루 2회 운영되며 개화기 정읍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샘고을시장서 19~23일까지 한급 행사

정읍시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샘고을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소비쿠폰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채간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산물과 일반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이번 환급 행사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수산물)는 행사 기간 중 국산 수산물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준다.

이와 함께 정읍시가 지원하는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열린다. 이 사업은 5만원 이상 9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9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초생활거점조성 5개년 '첫발'

정읍시 덕천면, 첫 설명회 성료... 69억 투입 면소재지 거점 중심의 지역활력 기대

정읍시 덕천면이 약 69억원 규모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덕천면은 17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될 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농촌협약 기반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이다. 면 소재지에 생활서비스 거점을 조성하고 돌봄·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해, 배후마을까지 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활력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9억 3600만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마을 이장, 기관·단체장 주민 등 다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사업의 기본계획 방향, 복합공간 조성안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받았으며, 면 소재지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활발히 제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주민위원회 공개모집 안내도 이어졌다. 주민위원회는 사업의 기획부터 시행·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 주민조직이다.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마을 간 의견 조정, 주민참여 행사 협조,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모집은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의

대표성을 고려해 30명 내외로 진행된다. 덕천면 주민은 물론, 직장·사업체·등록기준지 등 지역과 연고가 있는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마을·기관단체 추천자, 공동체 활동 경험자, 실제 거주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14일간이며,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이현주 덕천면장은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덕천면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자리였다"며 "지역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읍면지역 주택화재 증가 예방 활동이 중요"

이학수 정읍시장, 겨울철 난방 화재 위험 등 철저 점검 주문

이학수 정읍시장이 17일 오전 영상 간부회의에서 읍면지역의 주택 화재 증가세에 관심을 표하며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화재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며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할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읍면지역은 고령층이나 화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아,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관계 부서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겨울철 난방이 본격화되기 전에 읍면지역 화재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전기, 가스, 유류 등 난방 시설 전반에 대한 꼼꼼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마을별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 화재 예방 수칙과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ISO 14001 · 45001 동시 인증 3관왕 달성

ESG 행정도시 도약 본격화

부안군이 기존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에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새롭게 취득해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ESG 각 분야의 국제표준을 모두 갖추었고, 이에 기반해 'ESG 행정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부안군이 취득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은 조직의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실현하는 국제표준이며, ISO 45001은 조직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규격이다. 부안군은 두 인증 취득을 위해 조직 내 위험요소 관리, 환경영향 저감 절차 정비,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 광범위한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왔다.



특히 부안군은 기존 ISO 37001 인증과 ISO 14001 · 45001 인증을 기반으로, 2026년 1월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ESG 경영인증시스템을 취득할 예정이다. 'ESG 경영인증시스템'은 환경(E) · 사회(S) · 지배구조(G) 전반의 책임 있는 운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인정지원센터(KAB) 제정,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을 통해 인증받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자체의 ISO 인증 획득은 단발적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을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취약계층 보호 등 주요 현안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는 17일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기조에 맞춘 군정 대응 강화와 함께 정치적 중립 준수, 농업 제도개선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해 전 부서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국가사무 이양 등 실질적 권한 확대 방안을 제시한 만큼, 부안군도 '세비루 경제' 등 자립형 정책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책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 국비 확보와 연계 가능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확립과 공직선거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기

만료에 따른 이장 선출 과정에서 관변단체와 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행정담당관을 비롯한 전 부서에 철저한 법령 안내를 당부했다.

아울러 농지 활용 및 영농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의시설 설치 허용, 영농형 태양광 사용기간 연장(8~23년), 공동 영농법인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계획과 민원 안내에 신속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와 재난대응 체계 점검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본격적인 동절기에 들어서며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과 연말연시 물품 배분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전북연구원, 군정 현안사업 논의 정책간담회

고창군과 전북연구원이 지난 14일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는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점검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면서 최적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소통·협업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시설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 △무장·상하간 지방도733호선 도로 개설 △꽃장원단지 활용 및 홍보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각 사업별 전문 연구원 중심으로 분임별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연구원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 및 타 시군의 정책 동향 및 사례, 대응계획, 정책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소관 부서는 연구원과 머리를 맞대어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있는 토의를 이어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23회 고창고인돌마라톤' 4000여명 선수 참가 성료

아름다운 산과 바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가지를 간직한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전국 마라톤러들의 아름다운 추억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난 16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는 고창군체육회와 고창군육상연맹이 주관한 '제23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4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3종목(21.0975km 하프코스, 10km 단축코스, 5km 건강코스)으로 펼쳐진 이번



마라톤대회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코스인 공설운동장-월곡지하도-주곡회전교차로-고인돌유적지를 달렸다.

고창군은 가을철 다중모집 행사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파사고에 대비해 올해부터 참가인원을 4000명으로 선착순 마감했다.

또한 분부 및 반환점 등 주요 지점에 보건소와 소방서, 의료진, 구급차, 구급대원을 배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했다. 또 경찰서와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구간별 도로 통제로 별다른 사고 없이 대회를 마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